

땅의 통일을 넘어 ‘사람의 통일’ 을 위하여
- 통일에 있어 민족 이질화의 내용과 극복 방안

전우택/ 연세의대 정신과 교수

I. 시작하는 말 - 민족 이질화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가?

“통일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우리 사람이나 서독 사람이나 모두 같은 독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서독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독일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동안 같이 지내고 보니 그들은 같은 독일어 단어를 우리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들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와 내 주변의 동독 사람들을 얼마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전우택, 2000)

1997년 2월, 저자가 만난 그 구 동독 출신의 중년 남자 표정은 몹시 어두웠다. 통일은 이루어졌고, 그들은 통일된 조국에서 살고 있었으나 그 통일은 정치적, 경제적으로만 이루어졌을 뿐 아직도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표정은 그것을 너무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1996년도에 저자는 한 통일 관련 연구에서 남한에 들어와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 조사를 한 일이 있었다. 그때 물었던 설문 내용 중 하나는 다음과 같았다. 즉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통일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우택, 1997a). 102명의 탈북자들이 각각 두개씩 자유로이 대답을 하도록 하여 그것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았었는데 그 결과로 탈북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통일 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고 방식, 가치관, 문화, 생활 습관 등의 차이에 의한 이질감’ 이었다. 총 응답의 24.4%(205개중 50개)가 이것에 관한 것이었다. ‘통일 후 남북한의 사상과 이념의 차이와 대립’ 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23개(11.2%)로 나타나 3위로 나왔다. 즉 탈북자들이 생각하기에 통일 후 있게 될 갈등은 정치 이념적인 것보다는 사고 방식, 가치관 등의 차이에 의한 ‘이질감’ 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것이었다. 이화수(1999)도 이질감의 문제가 통일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독일과 탈북자들의 예는 우리 민족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통일이 분명히 두 가지 차원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전우택 등, 1997). 첫째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땅의 통일’ 이다. 둘째는 이질화된 사람들끼리 함께 어우러져 조화롭게 살게 되는 심리적 통합 측면의 ‘사람의 통일’ 이다. 혹자는 일단 ‘땅의 통일’ 이 이루어지고 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의 통일’ 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기대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진다.

첫째는 일차적인 ‘땅의 통일’ 후에 후속적인 ‘사람의 통일’ 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좀더 적은 갈등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땅의 통일’ 마저 다시 위협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심리적 이질감에 의하여 지역별, 계층별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그들 각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으려고 상호 적대적인 정치적 행동에 나서게 되면, 그것은 통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제 2의 분단’ 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둘째로, ‘사람의 통일’ 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동질성 회복’ 이라는 말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그 ‘동질성’ 이라는 말과 ‘동

질성의 회복'이라는 말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서 동질성의 회복을 단순히 '모든 북한 사람들이 다 남한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많은 문제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남북한의 심리적 이질감 내용을 알아보고, 그것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의 긍정적 해결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II. 심리적 이질감의 내용

일반적으로 이질감이란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즉 어느 한쪽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두 존재가 서로에 대하여 서로 느끼는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상황상 이질감은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는 이질감

일반적으로 남한 사람들이 느끼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질감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 영역이다. 북한 사람들이 말끝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시고 백전백승의 탁월한 군사전략가시고.....”라고 말하거나, 또는 “아버이 수령 덕분에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부러움 없이 잘 먹고 살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에 남한 사람들은 깊은 이질감을 느낀다. 남한에서는 전 국민이 남한의 최고 정치지도자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평가하는게 일상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정도에 비교하여, 이것은 큰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측면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전국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TV로 보면서, 김정일이 등장하였을 때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리고 환호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한 사람들은 큰 이질감을 느끼고 또 그것을 확인한다. 북한의 모든 신문의 글이고 학술 논문이고 일단 글의 시작에 반드시 언급되는 김일성, 김정일의 어록에 대하여 남한 사람들은 이질감을 느낀다. 이 모든 것이 북한의 지배 계급에 의하여 세뇌를 당한 것이든, 아니면 그런 체제하에서 살아남기 위한 개인적인 생존 전략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런 모든 모습들은 남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문화적 영역이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 뉴스 아나운서들이나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억양, 감정을 고조시키는, 우리식으로 보면 신파조의, 그런 말하는 태도와 그 말의 전개 방식 등에 대하여 이질감을 느낀다. 그것은 남한 코미디의 소재가 되는 정도로 취급된다. 북한의 전통 춤사위가 우리의 그것과 다른 것에 대하여 남한 사람들은 이질감을 느낀다. 저들의 그 빠른 춤동작들은 남한 사람들이 그 동안 보고 알아온 전통 무용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북한의 전통 춤동작들은 러시아의 전통 춤 분위기가 많이 들어갔다고 느끼면서 저들은 우리와 달라졌다고 느낀다. 어린 유치원 나이의 북한 아이들이 집단으로 판에 박힌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질서 정연하게 악기를 다루거나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서 남한 사람들은 이질감을 느낀다. 북한이 인간의 자유와 개성, 더 나아가 인간성을 무시하고 무섭도록 철저하게 인간을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은 곧 다시 북한과의 이질감으로 바뀐다. 하다 못해 북한의 세계적 수준의 서커스 공연을 보면서 그들의 기술에 찬탄하는 마음에 앞서, 저런 정도로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생을 강제

적으로 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이질감을 가지는 것이다.

셋째는 심리적 영역이다. 무엇보다도 남한의 대부분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직접 접해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과거를 가지고 있다. 외국에 나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한 땅에서 미국 사람들도 많이 보고, 일본 사람들도 많이 보았지만, 정작 북한 사람들을 만나 본 일은 거의 없는 것이다. 더구나 50년 이상을 북한과 완전히 단절되어 살아왔고, 철저한 반공 이데올로기 하에 교육을 받아왔다. 그러기에 과거에 초등학교 학생들은 북한 공산당 사람들은 정말로 모두 빨이 달린 붉은 색 악마라고들 생각을 하였었다. 외국에 나갔다가 우연히 북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대사관 앞만 지나가게 되어도 괜히 가슴이 뛰고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와 같이 좌우 대립, 한국 전쟁, 체제 경쟁, 반공이 국시인 상태, 남한의 많은 정치적 억압이 반공 논리에 의하여 이루어 왔던 점등을 통하여 북한은 철저하게 남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멀고 먼 나라로 존재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정치적, 문화적 영역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이질감의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다.

2.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는 이질감

한 30대 탈북자는 저자와의 면담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제가 제 3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강의실 안에서 예상치 않게 그 수업에 참석한 남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속으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남쪽 사람도 어떻게 해야할 줄을 모르고 매우 당황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니 나이를 먹었어도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은 것 같아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북한에서 온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는 남한 사람들에 대한 이질감을 직접 연구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저자가 탈북자들과 면담을 하고 그들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것 등을 통하여 탈북자들이 느끼는 남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이질감 내용을 볼 수 있었다. 이것 역시 크게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첫째는 사상적, 가치적 영역이다. 한 탈북자는 남한의 중,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읽고 나서 그의 소감을 저자와 같이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의 말은 다음과 같았다. “남한의 역사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만을 서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흘러 왔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와 ‘역사관’을 구분하지 못하여 생긴 이야기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은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물의 사상적, 가치적 측면을 중시 여기도록 교육받았는지를 보여주는 한 면이었다. 그들이 볼 때 남한 사람들은 돈 버는 것에만 발달되어 있고 그 외의 다른 더 거시적인 가치에 대하여는 무감각하거나 무지하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이질감을 느낀다. 저자와 면담한 한 탈북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었다. 이 탈북자는 남한에 들어와 대학교에 입학을 하였었다. 막상 대학에는 들어갔으나 아는 사람도 없고 가입한 서클도 없어, 어느 운동권 서클룸이라는 곳을 찾아갔다. 서클룸에 들어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그들과 무언가 통일과 민족에 관한 진지한 대화 나누기를 기대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서클룸에 앉아 있던 대학생들이 흥미를 보인 것은 북한의 가장 인기 있는 유행가는 무엇이나, 인기 있는 여배우 사진 가지고 있으면 좀 달라 하는 것들뿐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 탈북자는 남한의 사람들, 그것도 의식화된 대학생들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하며 큰 실망감과 이질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물론 그 대학생들은 낯선 청년이 들어와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 조심스럽고 경계를 하여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 탈북자와 솔직한 통일에 관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가 정말 탈북자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어쩌되었든 탈북자들은 그러한 크고 작은 계속된 남

한에서의 경험들을 통하여 남한 사람들의 그런 몰 사상적 태도에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었다. 즉 그것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간의 사상적 갈등이라기보다, 세상을 살면서 가지는 ‘사상에 대한 태도’와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었다(전우택 등, 1997).

둘째는 문화적인 영역이다. 많은 탈북자들이 저자와의 면담에서 이야기한 남한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남한 언어의 이질화’다(전우택, 1997a; 전우택 등, 1997). 즉 너무도 많은 외래어, 신조어들이 있어 남한 생활 초기에는 거의 남한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택시, 티브이, 비디오, 커피샷, 레스토랑, 뉴스, 프로그램, 컴퓨터, 씨디, 디스켓, 엔진, 오토매틱, 오일 등등 가장 일상적인 기본적 단어들이 탈북자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듣는 것이었으니 조금만 더 전문화된 단어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었다. 이것이 탈북자들이 느끼던 큰 이질감의 원인이었다. 이와는 다른 문화적 측면도 있었다. 한 탈북자는 TV에서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가수들의 공연 실황을 보고 중,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소리지르고 울고 하다가 실신하여 쓰러지는 것을 보며 큰 공포에 싸이고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는 말을 하였다. 저자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북한 TV에서 김일성이 등장할 때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리고 만세를 외치던 북한 주민들의 모습에 소름이 돋았던 이야기를 해 주면서 탈북자와 같이 웃었던 적이 있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문화 안으로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탈북자들은 그리도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하기야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고 더욱 다양화되는 남한 사회 안에서 남한 사람들조차 다른 세대, 다른 계층의 문화에 대하여도 이질감을 느끼는 마당에 탈북자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큰 이질감의 원인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사고 방식 영역이다. 앞에서 언급한 탈북 대상 설문 조사에서 탈북자들이 예상하는 통일 이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사고 방식, 가치관 등의 차이에 의한 이질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했었다. 이때 이러한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하였을 때 나온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다. 즉 “북한 사람들은 흑백논리가 강한데 비하여 남한 사람들은 회색 논리가 있어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전우택, 1997a,b; 전우택 등, 1997).

북한은 그동안 김일성 부자에 대한 ‘한없는 흠모’를 강조하고 ‘극악한 미제와 남한의 미제 앞잡이’들에 대한 ‘끝없는 적개심’을 강조하여 그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감정에는 어떤 중간적 입장도 철저히 배제하게 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김일성 부자가 훌륭하지만 그래도 좀 잘못된 것도 있었다”라든지 “미제가 극악하지만 그래도 국제 사회에 기여한 바도 조금은 있다”라는 식의 시각은 즉각 ‘반동’으로 몰리고 처형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즉 어떤 사물에 대한 분명하고 극단적인 입장을 가지도록 강요한 사회 속에서 북한 사람들은 살아왔다. 이것은 나름대로의 사상적, 가치적 측면을 우위에 두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전형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의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즉 세상의 사물에는 어떤 중간적 타협점이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입장을 모든 사물에 대하여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기회주의적’이라는 것이 가장 나쁜 성향 중 하나로 되어 있다. 즉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의견이나 태도는 옳은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나 집단이 무언가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안을 내는 것은 ‘약하고 불순한 일’로 여겨진다. 저자가 만난 한 탈북 청소년은 남한에 들어와 대학 입시 공부를 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자 자신은 아예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적당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그 탈북 청소년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물론 청소년기의 사고 방식에 의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에서 그가 보고 자라온 논리와 연관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북한 사람들, 탈북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남한 사람들은 매우 ‘회색 논리’적이라는 것이다. 즉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남한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구분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쉽게 원칙을 바꾸는, 또는 원칙이 없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탈북자들이 느끼는 이질감의 큰 원인이 되고 있었다.

III. 남북의 이질감은 어떻게 극복하여야 하는가?

1. 상대방에 대하여 알고 이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에서나 집단에서나 어떤 대상에 대한 심한 이질감과 적대감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그 대상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기인할 때가 많다. 즉 잘 모르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고 적대감을 가지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경우, 이러한 이질감의 가장 큰 원인은 서로를 잘 모른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이질감의 내용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상대방에 대하여 좀더 알게 된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한 사람들이 볼 때 북한 사람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고립된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여야 자기들의 어린아이들을 굶어 죽이지 않고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안중에 없이 명분에만 매달리고, 별 가치 없는 일(남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만 매달리는 것으로 본다. 자신들의 체제를 외국에 과시하기 위하여 터무니없는 거대한 건물을 짓고 있고, 국민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화려한 평양 축전을 하고, 역사적 근거도 희박한 단군 능을 엄청난 규모로 만들고 하는 것 등은 모두 북한에 대한 이질감을 넘어서 분노를 가지게끔 한다. 마치 사고 집단에 빠진 사람들이 전 재산을 다 교주에게 바치고 가정을 파괴하며 영망이 되가는 것을 보는 기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의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을 다르게 본다. 인간은 돈의 노예가 아닌데도, 그리고 민족의 독립과 자존심이 가장 중요한데도, 남한은 돈 한푼 더 벌기 위하여 민족의 자존심은 다 버리고 외국의 군대를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내정의 많은 부분을 간접 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경제적 성공은 어느 정도 더 해서 더 잘 먹고 산다 할지라도 인생은 먹고사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독립된 조국에서 굶어 죽는 것이 부유한 식민지에서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몇 년간의 식량 기근 사태는 비록 얼마간의 국민이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전쟁을 하면 이래저래 국민의 일정 부분은 죽기 마련인데 지금 북한은 일종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은 자신들의 이 굶주림 사태가 일종의 전쟁 현상이며 이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마치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과거 일본과의 독립 투쟁이나 조국해방전쟁(한국전쟁)시절의 비참한 사진들과 그에 대한 기억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전쟁 중에도 군인들의 사상 강화와 사기 고취를 위한 연극과 음악 공연 등은 계속 되었다. 그러므로 이 극심한 경제 고난 중에도 평양 축전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논리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지금의 작은(?) 희생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인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런 자존심 속에 존재한다고 본다.

이에 비하여 남한은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는 ‘자존심’ 보다도 휴머니즘적인 것에 둔다.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 것은 그것에 그 어떤 이유와 명분을 갈다 붙인다 해도 ‘굶지 않은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에 있어 목숨보다 더 중요한 명분이 있다는 것에 잘 동의할 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하에서의 경험에 의한 생각일 수도 있다. 여기서 남한 사람들에게 자존심은 곧 돈일 때가 많다. 경제적으로 파산한 기업주들은 자살을 한다. 돈이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기 때문이기보다는, 그러한 파산이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가지는 의미는 북한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자존심’의 상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의 눈에 이러한 자살은 남한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가장 전형적인 예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의 입장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이질감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로 된다. 즉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떤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나라이며, 그것을 처음 만들던 사람들은 어떤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변질하여 갔고, 그래서 결국 그 꿈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북한에 남아있는 가치관은 어떤 것들이며 그것은 지금 북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떤 식으로 남아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공부’이다. 그래야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비판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통일과 연관되어 우리 남한의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순수한 의미에서의 북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강요된 무관심’이었던 측면이 크다. 북한에 대한 관심 자체가 반체제적이고 반국가적인 것으로 매도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는 남한에서부터 극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젊은 학자들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2. ‘사람의 통일’을 위한 준비 교육이 전체 국민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연구들을 젊은 학자들이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학자들의 논의 속에서만 있어서는 통일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통일이란 민족 전체가 다 참여하여 체험하는 민족 전체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학자들의 연구는 일반 대중에게 알려져야 하고, 그로 인하여 전체 남한 국민들과 북한 국민들이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통일 준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첫째, 이와 관련된 영화, TV 프로그램, 드라마, 소설, 연극, 뮤지컬, 대중 강연, 책자 등이 개발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남한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 교육이란 예비군 훈련에서 보여주는 정부 정책 홍보 영화 정도의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 의한 효과는 크지 않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 북한 탈북자들이 지적하였듯이 남한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여 진지하게 고뇌하기에는 ‘사상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시간을 내고 또는 돈을 내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좋고 흥미 있는 작품들 속에 이러한 통일 문제가 잘 다루어지는 일들이 필요하다. 1999년도 흥행에 성공한 “쉬리” 같은 영화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그 작품은 부분적으로라도 통일을 향한 북한적 시각을 관객에게 전달하였고 민족의 통일은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화 속에서 북한의 간첩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북조선의 동포, 형제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남한의 사람들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와 영향을 가지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과 활동들이 앞으로 통일 준비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남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까지 같이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이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둘째,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가지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구 동독 출신 사람들과 서독 출신 사람들이 소규모로 함께 숙식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시도하여 큰 성과를 거둔 예들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남북한간의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주 작은 규모에서부터

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학술대회 형태로 주로 학자들이 만나 시간을 가지는 정도이지만, 이것이 점차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무슨 사상적인 논쟁이나 선전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일단은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희망, 걱정, 고민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도로만 그 내용이 제한되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적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시도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즉 근본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고 지엽적인 것에 시간을 빼앗기는 일 정도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는 그런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며 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이질화를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가져야 한다.

이제 한가지를 더 생각하고자 한다. 그것은 동질화에 대한 개념과 정의의 문제이다. 남북한의 이질화는 반드시 ‘성공적인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없어져야만 하는 대상인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북한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처럼 똑 같이 자본주의 논리에 편입되어 ‘또 다른 2200만의 남한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가? 만일에 그러하다면 이것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첫째, 북한의 것은 모두 다 가치 없는 것이고 빨리 버릴수록 좋은 것이다.
- 둘째, 남한의 것은 모두 좋은 것이고 빨리 받아들일수록 좋은 것이다.
- 셋째, 남북한 사람들이 모두 동질화되어야 통일 조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그 각각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북한의 모든 것은 다 틀리고 버려야만 하는 것인가? 물론 북한은 공산 독재국가로서 수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그런 가운데 만들어진 그들의 사고 방식이나 문화적 현상은 새로운 통일 사회에서 교정되거나 버려져야 하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북한의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다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에게 너의 모든 사고 방식과 사고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 틀렸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런 판단을 하는 그 사람 자신의 생각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판단은 늘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인의 가치관과 문화, 풍속을 현대 서구인의 시각으로 보면서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저자와 만난 한 구 동독의 지식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었다.

“통일 전, 우리 동독 사람들도 우리가 서독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못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동독 사람들이 더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즉 사회의 부를 인간들이 더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고, 더 인간적이고 안정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종의 옳고 그른 것의 문제라 생각했었다. 그러다가 통일이 되었다. 그리고 서독 사람들이 몰려들어왔다. 그런데 그들은 동서독의 차이를 옳고 그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월하고 열등한 문제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동독 출신 사람 모두를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바라보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른다”

저자는 여기서 북한이 추구해 온 공산 독재 체제가 약간의 긍정적인 측면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교육받고 살아온 그 사회의 모든 가치를 한 순간에 완전히 다 악하고 틀리고 열등한 것이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은, 그들을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에 빨리 성공적으로 편입시키는 일이 아니라, 2400만 북한 주민을 동시에 다

‘무능하고 자존심이 없고 자아정체감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존재’ 들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나 한 인간을 이해하고 교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보다 재화를 더 효과적으로 많이 생산해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북한 사람들의 모든 삶과 과거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도 잘못된 발상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버리고, 어떤 부분은 수정하여야 할 지를 잘 구분하여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신흥 종교 집단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을 다시 재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원칙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다. 즉 그 신흥 종교 집단의 모든 것은 다 악하고 틀려먹었고, 그래서 그곳에 끌려 들어간 사람들도 다 제정신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며,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된다는 식의 극도의 단순하고 절대적인 태도는 사람들의 재사회화를 실패하게 한다. 나름대로 그 신흥 종교 집단이 가진 심리적인 위안과 매력은 어떤 것이었고, 장점은 어떤 것이었으나,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나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식으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균형 있게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도록 내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재사회화 성공의 가장 큰 원칙인 것이다(전우택, 1994, 1996). 이러한 원칙은 ‘사람의 통일’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 북한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도, 더 건강하게 통일 사회에 적응하여 갈 것이다.

둘째, 남한의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고 북한 사람들이 빨리 받아들일수록 더 좋은 것인가? 남한은 인류 역사에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동안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한 사회이다. 이에 따라 인간의 정신은 많이 황폐화 되었고, 발전의 속도만큼 부패와 파괴의 속도도 컸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교정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어떤 형태로든지 가지지 못하고 계속 떠밀려온 것이 사실이다. 자성의 목소리는 언제나 더 강력한 발전 논리에 덮여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다시 2400만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시 가지라고 하는 것은 큰 착오라 할 수 있다. 북한 사람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만큼, 실은 남한 사람들의 변화, 통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솔직하고도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남한은 변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2400만의 새로운 ‘통일 조국’의 파트너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셋째, 동질화가 이질화의 해답일까? 민족이 남북한으로 이질화되었으니 빨리 동질성을 되찾도록 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다.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정치적, 문화적, 심리적 장벽을 없애고 다 같이 조화 있게 살자는 의미에서는 좋은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적 특징’을 완전히 다 부정하고 ‘남한 사람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문제가 있음을 위에서 지적하였었다. 무엇보다도 동질화가 이질화의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여러 개의 해결책 중 하나는 될 수 있겠으나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하여 잠시 미국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 동화 이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외국 이민자들이 유입되어 들어왔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편입되는가가 국가 생존에 절대적인 문제가 되었고 그에 따라 이에 대한 많은 연구 이론들이 있어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소위 동화이론(Assimilation theory)이었다. 이것은 다양한 민족 출신의 이민자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정착 사회 안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문화를 공유할 수 있으며,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 결국 완성되어 갈 것이라 본 이론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모든 이민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며 이것은 불가피하고도 불가역적인 것으로 보았다(Park, 1928; Warner and Srole, 1945; Wirth, {1925} 1956) 소위 융합 도가니, 또는 용광로(melting pot)라는 용어가 이런 이론을 상징적으로 설명했다. 동화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 민족 집단이 미국에서 그들의 전통 문화와 관습, 고유 언어를 계속 유지하면서 고립된 소수 민족으로 남는 것은 그들의 건강한

적응과 동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았다(Child, 1943; Warner and Srole, 1945). 즉 이민자들이 주변적 위치에서 사회 중심부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오래된 문화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실제로 1920년대에서 50년대까지 미국에 이민을 온 사람들은 주로 유럽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정착 기간이 길어지고 세대가 바뀌어 가면서 교육, 직업 등에서 기존 미국 사람들과 같아지고, 언어도 능숙해 지고 통혼도 이루어졌다. 즉 동화 이론은 성공적으로 구현된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면서 기존의 동화 이론에 맞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미국에 아시아계, 라틴계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이민 환경의 변화가 생겨났고, 이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미국의 주류 문화에 편입되지도, 통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얼마든지 잘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동화이론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즉 미국 사회를 하나의 통합된 성격을 가진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 인종, 소수 민족이 모이는 모자이크와 같은 시각으로 보자는 이론이 등장한 것이다. 이것은 다원적 이론이라 불리었다. 여기서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민족, 집단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전체 사회를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라 그 사회의 장점이고 자원으로 보자는 시각을 가진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그 각 민족의 특징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전체 사회에 더 도움을 주고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Glazer와 Moynihan, 1970; Handlin, 1973). 이러한 다원적 시각 이론에서는 이민자들의 문화와 전통이 주류 문화에 흡수 통합되는 것을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둘은 계속 상호 반응을 일으키며 서로를 변화시켜 나간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회에 새로운 역동성을 준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미국 이민자들의 사회 동화 이론을 우리의 통일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이민 사회는 인종, 언어, 전통 문화 등에서 쉽게 넘을 수 없는 구체적인 차이가 있는 반면에 남북한 사람들은 그런 근본적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객관적 조건으로 본다면 동화이론을 적용시키는 것이 더 합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하여야 할 점은 그런 동화의 방향과 속도이다. 그런 동화를 ‘북한적 특징을 완전히 무시한’, 그리고 ‘급속하게’, 때로는 강제적 성격까지 지니면서 이루어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이질화를 극복하고 동화를 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람의 통일’ 과정에서 이질성을 없애려는 노력이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로 된다. 문제는 이러한 이질화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질화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승화의 대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질화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남한 사회에서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자신과 조금만 달라도 ‘왕따’를 하여 강제적으로라도 동질화시키는 사회가 남한 사회이다. 다른 특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과 공존하는 경험이 많지 않은 것이 남한 사회의 약점이며, 또한 북한 사회의 약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람의 통일’을 향한 이러한 이질감의 극복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주어진 가장 마지막의 중요하고도 힘겨운 과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사회, 북한 사람들의 행동과 의식 구조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이제는 통일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를 들면, 현재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의 내부 경험이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동질화된 집단보다도, 이질적인 집단들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어 더 큰 상승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그것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IV. 민족적 이질감을 극복하는데 있어 한국 기독교의 역할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민족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힘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민운동 의식, 남한 국민들의 좀더 다원화된 시각, 국제화에 따른 타문화에 대한 수용

경험의 증가, 시장 개방 등이 그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직접적으로 이 남한 사람들의 내면 심리에 존재하고 있는 이질감을 인지적인 측면이 아닌, 행동적인 측면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기독교 신앙 자체가 ‘다른 것에 대한 포용’ 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그 발생 자체가 ‘유대인과 이방인’ 이라는 가장 이질적인 존재의 갈등을 극복하면서 형성된 종교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초대 교회 때부터 계층, 민족, 노예와 로마 시민, 남자와 여자 등의 당시 사회적 상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이질적 장벽들을 넘어 형성된 종교라는 점에서 남북한 상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둘째, 남한의 교회들이 가진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을 들 수 있다. 남한의 교회들은 통일과 연관되어 북한 선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분단 이전 북한 지역은 남한 지역보다 훨씬 더 기독교가 확산되어 있었던 지역이었다. 따라서 그 지역에 다시 교회를 재건하여야 한다는 일종의 종교적 책임감이 강하며 그에 따라 북한을 지원하려는 자원을 동원하는데 있어서도 남한의 교회는 남한의 어느 집단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한국 전쟁 당시 북한에서 500만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왔는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활동한 기독교도라는 점이다. 따라서 남한의 교회 안에 이들 북한 출신 사람들은 매우 많으며, 이들은 통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교회가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크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질감을 심리적으로 가장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향후 통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인 남한 사람들의 “북한 땅문서 포기 운동” 등에 가장 직접적으로 먼저 나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써 이들 북한 출신 기독교인들의 활동은 매우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의 교회는 통일 운동, 이질감 극복을 위한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스스로 인식하고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상 차이와 이권에 따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로서 기독 신앙은 유일한 힘은 아니더라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극복하여야 할 몇 가지 내부 장애물이 있다. 첫째, 반공 전통이다. 실제로 한국 전쟁 기간 중 기독교와 교회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가장 큰 피해 집단이었으며 또한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 자신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가장 큰 피해자들이었다. 따라서 냉전 기간 중 한국의 기독교, 특히 기독교의 주류인 보수교회들은 남한의 반공 보수 세력에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공 이데올로기 전통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기독 신앙을 가지고 하여야 할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배타적 태도이다. 교회는 그 시작이 이질적 집단의 포용으로 시작되었으나, 종교의 본성 상 ‘옳고 그른 것’ 을 구분하는 일에 민감해져 왔었고, 따라서 그것에 지나치게 민감해져 오히려 가장 ‘비포용적’ 인 집단으로 외부에는 비추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의 많은 사물들은 ‘옳고 그른 것의 문제’ 라기 보다는 그저 ‘좋고 나쁜 것의 문제’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일 뿐임을 자각하는 영적 성숙이 필요로 된다. 그래야만 포용과 화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V. 마치는 글

민족 이질화는 분명히 우리 민족이 가졌던 비극의 산물이다. 반세기 이상 지속된 처절한 분단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질화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더 세계화되어야 하고, 우리와 다른 인종, 언어, 종교, 사상, 문화를 가진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더 밀접하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 민족 전체에게, 이 이질화와 그 극복의 경험은 우리 민족을 새롭고 더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이 이질화 된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다만, 이질화 된 서로를 바라보며, 남북한 사람들은 이제 서로 스스로의 약점과 문제점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각자의 장점은 더욱 살려, ‘최고의 민족’ 을 만들어 내는데 이 이질화를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요새 ‘드림팀’ 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21세기, 세계의 무대에서 활동해 나가야 하는 우리 민족이 ‘남북한 단일 드림팀’ 으로 되어 나가려면 이 이질화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차이를 적절히 이용하며 극복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왜 ‘분단이라는 시련’ 과 ‘통일이라는 기회’ 를 주시고 계시는 걸까?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민족은 무엇을 체험하여야 하고, 어떤 변화를 이룩하여야 할까? 우리 민족의 통일은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 되어야 할까? 그것은 단지 정치, 군사적으로 분단되었던 한 조그만 나라의 정치, 군사적인 통합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질화된 민족의 통합을 통하여 계층적으로, 성별로, 인종별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뉘어지고 쪼개진 인류에게 통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포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질화의 극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서의, 모범으로서의 의미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통일과 이질화 극복의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의미가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이화수 (1999) : 통일 한국의 정치심리학 - 남북한간 인성통합을 위하여. 서울. 나남출판

전우택 (1994) : 신흥종교집단에 대한 정신의학적 이해. 정신병리학 3(1) : 23-33

전우택 (1996) : 신흥종교 집단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35(2):249-259

전우택 (1997a) :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 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2 p109-167.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우택 : (1997b) : 난민들의 정신건강과 생활 적응에 대한 고찰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전망과 대책. 신경정신의학 36:1 p3-18

전우택, 민성길, 이만홍, 이은설 (1997) : 북한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6:1 p145-161

전우택 (2000) : 사람의 통일을 향하여 - 이질화된 남북한 사람들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사회정신의학적 고찰. 도서출판 오름

조혜정 (1994) : ‘북조선 ‘과 ‘남한 ‘의 동질성과 이질성. 또 하나의 문화통일 소모임.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p 45-52.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Child IL (1943) : Italian or American? The Second generation in Conflic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Glazer N, Moynihan DP (1970) : Beyond the Melting Pot: The Negroes, Puerto Ricans, Jews, Italians, and Irish of New York City. Cambridge MA, Mit Press, 2nd edition

Handlin O (1973) : The Uprooted. Boston, MA, Little Brown, 2nd edition

Park PE (1928) : Human migration and the marginal ma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33: 881-93

Warner WL, Srole L (1945) : The Social Systems of American Ethnic Group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Wirth L (1925/1956) : The Ghetto.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본 글은 남북나눔운동 연구위원회에서 출판한 “21세기 민족 화해와 번영의길” (크리스찬서적, 2000)에 실린 바 있습니다.